

부산북스타트운동의 전개양상과 발전 방안

— 국내외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과 관련하여 —

이 용 재*

<차 례>

1. 서론
 2. 주민자치시대의 도서관운동
 3. 국내외 독서운동의 양상과 특성
 4. 부산북스타트운동의 성과와 한계
 5. 결론 및 정책제언
-

1.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시대는 정보를 활용하고 지식을 생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생산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산업은 정부의 원천이자 가장 경쟁력있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5%를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얻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또한 양질의 지식이 생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yj5384@pusan.ac.kr).

산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지식은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나올까? 아니면 유비터쿼스(Ubiquitous) 환경의 디지털도서관에서 나올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보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식을 이해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책과 같은 아날로그매체가 보다 효과적이다.¹⁾

지식기반시대와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한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이 요청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외의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부산지역의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방향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민자치시대의 도서관운동

1)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와 정보격차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 국민들은 타율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주민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주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지방은 ‘우월’과 ‘열등’이라는 이분법적 정책구도와 사회인식 속에서 각자 파행적으로 성장하거나 소외되어 왔다. 수도 서울에 부와 권력,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와 정보가

1) 현대 사회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책과 도서관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급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술맹신주의(technolust)’의 허점을 지적하고 인류사회의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책과 도서관의 역량과 미덕을 논증하는 대표적인 책은 다음과 같다.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ALA, 1995;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민음사, 1997.

몰려있는 현상은 지방의 빈곤과 소외 현상을 가중시켜 왔다. 반면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중앙집중 현상은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강과 생산성에도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해 왔다.

한편 지방은 중앙의존적, 관변적, 상의하달식 의식과 문화에 길들여져 왔으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의 개념이 강조되고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시행되고 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수도와 지방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속에서도 특히 정보격차를 문제삼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자원과 양질의 지식은 점차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기본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 및 활용에서의 불평등은 각종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식기반시대의 핵심은 개방적인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유통, 활용이기 때문에 자율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한다. 즉, 우리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 나아가 자유로운 접근을 실현하는 것은 지역주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동시에 향유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보와 지식의 순환과정에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우리 사회의 건실한 공동체 구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2) ‘광장’으로서의 서구 공공도서관과 ‘밀실’로서의 한국 공공도서관

서구 선진국에서 공공도서관은 근대 이후 ‘민중의 대학(people's coll-

ege)’으로서 시민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해왔다. 근대 서구의 시민사회에서 도서관이 성립되는 역사는 그야말로 자유와 지식에 대한 인류의 열망을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대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서, 시민계급의 주도 아래 봉건적인 구제도와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근대적인 시민사회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789년 11월 입법의회에 의해 프랑스의 모든 교회도서관은 국유화되었으며, 그 후의 포고를 통하여 망명귀족의 장서도 몰수되었다. 몰수된 책과 필사본은 파리 시내의 곳곳에 설치된 문헌보관소(dépôts littéraires)에 보관되었다.²⁾ 이처럼 프랑스대혁명은 고대와 중세 동안 왕족, 귀족, 성직자과 같은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책을 민중에게 개방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나아가 시민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근대적 공공도서관의 본격적인 모델은 미국 보스톤공공도서관의 경우가 될 것이다. 1854년에 설립된 이 도서관은 공공의 세금지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전시민을 위한 무료의 도서관봉사 원칙을 확립하였다.³⁾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도서관이 위와 같은 ‘민중의 대학’으로 성립하지 못하였다. 시민혁명에 의한 근대 수립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우리 사회가 구한말 이후 일제 식민통치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보와 지식의 유통과정도 왜곡되어 왔다. 즉, 정보와 지식의 주요 통로인 교육과 언론이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도 근대 시민사회의 ‘열린 광장(forum)’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신분상승을 위한 시험공부 자리를 제공하는 밀폐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지역사회의 정보·문화·교육의 구심체로 만드는 도서관운동에 일생을 바쳐 헌신해왔다. 근현대 한국사회에서 도서관운동이 여러 국면에서 진행되었지만, 여기서는 특히 마을문고 운동을 언급한다.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엄대섭(嚴大燮)은 1961

2) 정필모·오동근, 『도서관문화사』, 구미무역, 1991, 104쪽.

3) 위의 책, 145쪽.

년 2월 1일 ‘마을문고 운동본부(당시는 농어촌 마을문고보급회)’를 조직하게 된다. 마을문고란 우리나라의 낙후된 농어촌의 문화향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서 30여권과 소형의 목제책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농어촌 부락 상호간에 독서를 권장하고 그 부락공동의 협력으로 도서를 증가시키고 문고를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마을문고 운동은 1968년에 그 수가 1만을 돌파하였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1979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동리의 95%에 해당하는 36,303개의 마을문고가 설치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82년 마을문고 본부는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라는 단체명으로 바뀌며, 새마을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마을문고 운동은 능동적인 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새마을 운동의 하부 체제로 묻히면서,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⁴⁾

3) 참여정부의 도서관정책

나는 여기에서 21세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도서관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선 참여정부의 도서관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도서관정책은 지난 ‘국민의 정부’의 도서관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8월 2일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되어 확정된 문화관광부의 ‘미래형 지식문화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2011)’이다. 이러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정보서비스 중심으로 리엔지니어링하여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지식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의 기반 위에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로 지식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자도서관

4)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2002, 73~93쪽.

(www.dlibrary.go.kr)을 더욱 발전시키며, 2006년까지 국가자료종합목록을 확대하여 관종별 도서관 소장 목록의 실질적 통합을 통하여 도서관간 상호대차, 공동대출·반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⁵⁾

이 계획 중에서 공공도서관 분야를 좀더 살펴본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그 부족현상을 해소해서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한 구심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약 11만명당 1개관 수준을 6만명당 1개관 수준(800개관)으로 확충하고,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에 도서관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2천3백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연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도서관의 설립·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동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자치단체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문화기반시설 평가와 연계하여 차등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계획은 이후 2003년을 거쳐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도서관 정책의 밑그림이 되고 있다.⁶⁾

4) 지역사회와 도서관운동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의 도서관정책은 지방자치시대의 도서관운동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도서관운동의 방향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가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운동의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1) 영국의 ‘도서관 친구(Friends of Library)’

영국의 도서관은 산업혁명 이후 확산되고 성장해왔다. 영국 도서관

5) 이용훈, 「참여정부의 도서관정책: 자율과 분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41권 제1호, 2004. 1, 33~34쪽.

6) 위의 글, 34~36쪽.

의 경우 주목할 점은 일찍이 도서관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생겨난 4,500여개의 분관 형태의 도서관을 살펴보면, 주택가의 가정집이나 학교를 개조한 도서관, 대규모 쇼핑센터 내에서 상가와 나란히 위치하는 도서관, 수영장이나 공동목욕탕과 함께 있는 도서관 등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 이후 영국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겪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도서관을 살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영국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상당히 깊은 편이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도서관 단위로 ‘도서관 친구(Friends of Library)’⁷⁾가 활발하다. ‘도서관 친구’는 경제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도 하고, 행사가 열릴 때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진행을 돕기도 하고, 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사서의 서비스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들의 문화생활 향유의 대상인 도서관을 지키고 가꾸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일본의 우라야스 도서관⁸⁾

우라야스는 도쿄 도(都)와 지바 현(縣)의 경계를 이루는 에도가와 하구에 있는 작은 어촌이다. 우라야스시에 1980년대 초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쿄에 디즈니랜드가 생기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자

7) ‘도서관 친구’란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운영과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든 시민모임이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등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서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약 5,000여 개의 친구 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라마다 ‘Friends of Library’라는 이름 외에도 각 모임의 특성을 강조하여 ‘Library Action Group’, ‘Library Support Group’, ‘Library Matters’, ‘Library Campaigning Group’ 등 다양한 이름의 모임이 있지만 그 활용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8) 우라야스 도서관의 건립과정과 성공에 대한 내용은 『우라야스 도서관 이야기』, 한울, 2002를 참조하십시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다.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시에서는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다케우치 노리요시(竹內紀吉) 관장을 파견하였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많은 점, 특히 도시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고학력 주민이 많은 점, 마을에 교육·문화 시설이 전혀 없는 점 등이 도서관 육성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의 도서관이 일본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이 된 것에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다.

첫째, 도서관이 사람들의 도보권 안에 위치하였다. 주민들이 중앙관과 3개의 분관, 10개의 이동도서관 설치장소까지 ‘걸어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즉, 도서관 서비스의 유효반경 안에 도서관을 만든 것이다.

둘째, 도서관 건립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도서관을 바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주민의 공동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지역당국은 도서관 건립 준비과정에 도서관 전문인을 참여시키는 등 유연하고 개방적인 행정을 펼쳤다.

셋째, 공립도서관 운동의 이론적 기반과 선행 사례가 일본 사회에 축적되어 있었다. 일본에서는 우라야스 도서관 사례가 나타나기 훨씬 전인 1963년에 「중소도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약칭 「중소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생산되었으며 또한 1970년에 「시민의 도서관」이라는 책자가 간행되었다. 「중소리포트」의 작성을 지휘한 인물은 아리야마이다. 그는 1965년에 자신의 고향이자 거주지인 히노시에서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중소리포트」의 실재를 구현하기 위하여 차량 한대로 이동도서관을 시작하여 그 후로 9년 뒤 중앙관을 완성하였다. 히노시립도서관의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운영은 훗날 일본 공공도서관의 기본방침을 크게 바꿔 놓게 되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1968년에 도서관의 근대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펴고 있는 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1970년에 「시민의 도서관」이라는 책자를 간행했다. 히노시립도서관의 실천을 토대로 그것을 보편화함으로써 일본 공공도서관 전

체의 발전을 피하자는 것이었다.⁹⁾

(3) 우리나라 주민도서관 운동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여러 지역에서 전개되어 왔다. 최근까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산의 회원제도서관인 책사랑, 창원의 마을도서관, 서울 난곡의 주민도서관, 에스콰이어그룹의 인포어린이도서관, 대구의 새벗도서관, 경기도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의 ‘기적의 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민도서관 운동은 대략 4갈래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운동과 민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주민도서관 운동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마산의 책사랑과 난곡 주민도서관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봉사 및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전개된 주민도서관 운동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포어린이도서관이다.

셋째, 시민단체 및 사회지도층의 주도와 언론의 기여로 전개된 주민도서관 운동이다. 주요 사례는 창원의 마을도서관과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넷째, 헌신적인 개인의 노력으로 주민생활 속으로 파고든 주민도서관 운동이다. 대표적 사례는 새벗도서관과 느티나무 도서관이다.

이처럼 이러한 주민도서관 운동 사례들은 각자 상이한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각자 일정한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양상을 진단하지 않고, 이들 중에서 주민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요 사례인 새벗도서관과 느티나무 도서관에 대해 언급한다.

새벗도서관(관장 신남희)은 1989년 대구의 중구 봉산동에서 책 2,000권으로 출발했다. 이후 새벗도서관은 1993년 민간도서관으로 거듭나는

9) 하야시 마사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일본의 공공도서관」, 『북매거진』, 1996. 2. 10, 39~40쪽.

과정에서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내놓은 기금을 모았다. 민간도서관 건립에 보여준 시민들의 성원은 공공도서관의 절대 부족, 기존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불만족, 시민사회 운동으로서의 도서관운동에 대한 동의 등 여러 가지 합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후 새벗도서관은 1999년 2월에 인구밀도가 높은 성서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그 해 10월에 대구시 제1호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였다. 새벗도서관은 독서회, 토론마당, 문화답사, 문학강좌, 주부모임, 어린이책 작가와의 만남, 마을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사랑방으로 기능해오고 있다.¹⁰⁾

한편 느티나무도서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의 현대성우아파트 상가 지하 40여평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 2000년 2월 사립문고로서 개관했지만 이제 수지뿐만 아니라 구성과 분당에서까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찾을 정도로 유명하다. 박영숙 관장이 사재를 털어 산 책 3,000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족회원 1,600여명, 소장도서 8,500권, 하루 평균 대출도서 400여권으로 여느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를 능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호흡하는 문화공간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도서관운동의 기본 과제로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도서관을 일상 속에서 이용하면서 후원하는 ‘도서관 친구’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신남희, 「사립도서관의 현황과 전망」,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2002, 528~530쪽.

3. 국내외 독서운동의 양상과 특성

최근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독서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과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례들의 전개 양상을 개관한 뒤, 부산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산북스타트(Busan Book Start)’ 운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부산지역의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전개방향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를 고찰한다.

1) 국내외 북스타트 운동의 전개양상

(1) 영국 북스타트 프로그램

영국의 북스타트는 세계 최초로 아기들을 위하여 시도된 도서프로그램이다. 이 운동의 주체인 ‘북트러스트(Booktrust)’는 전국 단위의 독립적인 자선단체로 북스타트의 목적을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고 나아가 일생 동안 책읽기를 좋아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선물하는 것”¹¹⁾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스타트의 기본 활동은 34주간(약 8~9개월)의 보건진료를 마친 유아에게 무료로 책선물 가방을 전달하는 것이다. 가방 안에는 2권의 유아도서, 도서관카드, 열쇠고리에 휴대할 수 있는 바코드고리, 아기이름을 쓸 수 있는 북마크, 시(詩)가 코팅된 판, 지역도서관 안내자료, 북스타트 안내자료, 소수민족 언어로 쓰여진 유아도서관 카드 및 북스타트 도서선물권, 장난감 등이 들어있다.

북스타트 운동은 책과 아기들을 함께 묶어주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북스타트는 책을 나누는 즐거움이지 아기들에게 독서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¹²⁾ 영국 북스타트는 북트러스트의 구상에 의하여

11) <<http://www.bookstart.co.uk/>> (Cited 2005. 4. 15).

1992년 영국 버밍햄(Birmingham)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버밍햄의 300가구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나의 예비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이 연구를 담당한 연구팀(Wade and Moore)은 유아들이 9개월이 되어 건강진단을 받을 때 이들의 부모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주었다. 그 뒤 이 유아들의 발달과정을 5년 동안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 이들이 초등학교를 시작할 무렵에 언어 및 수 개념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음을 발견되었으며, 또한 이 유아들이 책을 받고 2년 후에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보다 세 배나 더 많이 독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¹³⁾

영국 북스타트운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92년에 300여명의 아기들이 참여하였는데, 2002년에는 650,000여명의 아기들이 참여하였다. 1999년부터 아기들에게 3백만 권 이상의 도서를 나누어주었다. 북스타트를 장려하기 위해 5천여개의 도서관이 협력하고 있다. 북스타트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좀더 어린 나이에 책을 가지고 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여러 아동도서 출판사들이 북스타트를 지원하며, 전세계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북스타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¹⁴⁾

이처럼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주안점은 아기들이 책을 장남감이나 친구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책이 아기의 일생에 첫 동반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북스타트는 도서관과의 연계를 필수적인 요소로 삼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영국 셰필드(Sheffield) 도서관의 경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예산을 투자하고 또 외부 기금을 도입하여 이 사업을 수행할 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또 이 운동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

12) Booktrust, *Welcome to Bookstart*, Booktrust, 1992, p.1.

13) <<http://www.bookstart.co.uk/general/history/small.html>> (Cited 2005. 4. 15).

14) Wendy Cooling, "The National Bookstart Programme in the UK", 「세계 북스타트 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3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 한국프레스센터, 2003. 9. 22, pp.11~12.

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아사서직(Early Years Librarian)’을 만들었다. 또한 도서관은 사서 중심의 유아프로그램, ‘여름가족독서프로그램’과 ‘가족학습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도서관은 유아와 부모 등 가족관계 개선 그리고 소외가정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¹⁵⁾

(2) 일본 북스타트 프로그램

일본의 북스타트는 2000년 ‘어린이 독서의 해’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설립된 NPO(비영리법인) 북스타트지원센터의 주관 아래 전국 21개 지역에서 북스타트운동이 시작되었다. 2003년 8월 현재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6분의1에 해당하는 506개 시(市)·구(區)·정(町)촌(村)에서 실시되고 있다.¹⁶⁾

일본 북스타트는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이를 일본 사회에 알맞게 유연하게 전개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의 커다란 과제였던 식자율(識字率) 저하 같은 문제가 일본에는 없으며, 영국의 도서관 숫자는 일본의 10배 이상 되는 것이다. 각 지역에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영유아 대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곳, 도서관이 없는 곳, 자원봉사자가 없는 곳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 북스타트는 북스타트의 기본 목적을 공유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즉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단체, 자원봉사자, 서점,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보육사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일본 북스타트 운동에는 이와 같은 지역 내의 연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기업 및 단체, 그리고 북스타트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⁷⁾

15) 김영석,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 셰필드 북스타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2004. 6, 308~309쪽.

16) 사토 이즈미, “일본 북스타트의 현황”, 「세계 북스타트 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3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 한국프레스센터, 2003. 9. 22, 19쪽.

17) 위의 글, 20~21쪽.

실제로 아기와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북스타트 가방 세트(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이드북, 도서관 등록카드, 추천도서 목록 등이 들어있는 북스타트 전용 팩)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또한 북스타트지원센터는 질 높은 북스타트 가방 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심사회의를 통하여 그림책을 엄선한다.¹⁸⁾

(3) 한국 북스타트 프로그램

북스타트 운동의 효과가 점차 검증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1년부터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으로, 2003년에 설립된 ‘북스타트한국위원회’가 ‘중랑구 북스타트운동’을 시행하였다. 한편 같은 해 부산에서도 ‘부산북스타트운동(Busan Book Start, 이하 BBS)’라는 이름의 독서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과 BBS는 이상에서 살펴본 북스타트 운동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원래의 북스타트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것인데,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과학을 친숙하게 느끼는 것을 돕기 위한 운동으로서 주로 산간벽지와 낙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책을 보내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BBS는 책읽는 부산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 독서운동으로서 대상 연령대가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국 북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북스타트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중랑구 북스타트 운동’만을 살펴본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시작된 한국 북스타트 운동은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들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장려하는 운동이다. 북스타트한국위원회는 2003년 4월 1일을 ‘북스타트데이’로 선포하였다. 출범식과 더불어 중랑구 보건소에 ‘북스타트 데스크’를 설치하여 사서나 자원봉사자가 주6일을 근무하면서 DPT 3차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생후 6개월 전후

18) 위의 글, 22쪽.

의 영아에게 특별히 제작된 그림책 2권과 안내책자 등이 담긴 가방인 Bookkit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동시에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를 주축으로 북스타트 연구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2003년 11월에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3차 촬영과 설문조사와 함께 12월에 중랑구 북스타트 시범사업이 종료되었다. 2004년 4월 북스타트한국위원회는 그간 조사한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¹⁹⁾

중랑구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의 결과, 북스타트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곽금주 교수의 조사에서는 북스타트 운동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3번의 측정을 시행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법과 가정을 방문하여 아기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북스타트 참여집단 영아와 비참여집단 영아의 발달수준을 비교한 결과, 인지영역, 언어영역, 사회성영역에서 참여집단 영아들이 비참여집단 영아들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다만 이러한 연구에서 북스타트 참여기간으로 설정된 6개월은 비교적 단기간이기 때문에, 책이 아기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이 연구가 전적으로 검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앞에서 소개한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효과를 검증한 Wade와 Moore의 연구²¹⁾에서는 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정을 5년 동안 세밀하게 관찰하였기 때문에 북스타트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북스타트는 아기에게 학습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아기와 부모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아기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독서활동은 단기간의 이벤트나 전시적인 캠페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

19) 이수진,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부산 북스타트 운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8, 26~27쪽.

20) 곽금주, 「한국의 북스타트 시범운동 효과에 관한 연구(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 서울대 심리학과, 2003, 123~131쪽.

21) <<http://www.bookstart.co.uk/general/history/small.html>> (Cited 2005. 4. 15).

나라 개인이 일상적으로 평생에 걸쳐 즐기고 누려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독서환경이 제대로 조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북스타트운동이 공공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아직 매우 미흡하다. 중랑구 북스타트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도서관에서의 프로그램 부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부족, 보건소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 등의 여러 문제가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²²⁾

우리나라는 독서환경과 도서관서비스 수준에서 개척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북스타트 운동이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로 펼쳐질 필요가 있다. 서울 중랑구 북스타트는 2003년 시범사업에 이어 2004년 8월 31일 본 사업을 재가동했다. 중랑구 북스타트는 지역주민들의 열성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북스타트가 잘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³⁾ 이처럼 북스타트는 매우 유용하고 건강한 독서운동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한국인의 생활 속에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도서관이 확산되고 도서관서비스를 사람들이 평소에 편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

2) ‘한 책, 한 도시’운동의 현황과 특성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이란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권의 책을 온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자는 운동이다. 미국 시애틀시에서 1998년에 처음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금세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매우 두드러진 독서운동이면서 문자문명의 재정립을 도모하고 토론문화를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이 운동은 지역사회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주축으로 하는 운

22) 이수진, 앞의 글, 28쪽.

23) <<http://www.bookreader.or.kr/>> (Cited 2005. 4. 15).

동주체가 매년 한 사람의 주요한 현대작가를 초청하여 그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한다. 작품의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좋은 책(良書)’라는 기준보다는 ‘토론하기 좋은 책’이라는 기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책 선정을 위해 시민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집중 토론하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성인 독서토론, 작가의 방문, 연극, 영화, 전자도서 제공 등)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운동주체는 자료안내서를 만들어 제공한다. 주로 사서들이 제작하는 이 안내서에는 작가 소개, 작품의 배경자료, 토론을 위한 질문과 활동 지침, 서평, 추천 자료, 프로그램 평가양식 등이 실려 있으며, 인쇄본으로 도서관과 서점에 제공되고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기도 한다.²⁴⁾

근대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을 탄생시킨 사회적 기본 합의는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으며, 교육의 기본 도구는 책인데, 모든 주민이 각자 필요한 책을 자비로 충당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세금으로 마을에 공동의 독서시설을 만들어 운영하자”²⁵⁾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그 출발부터 교육·문화·정보의 센터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는 기관은 아니다.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무언가를 탐구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때로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인프라인 것이다.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그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시 혹은 시민의 문화적 역량, 결집도 그리고 독서환경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사회가 획일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24)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4. 9, 46쪽.

25) 이용남,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의 방향: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계획 단계에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도서관협회·서산시립도서관, 2003. 9. 26, 2쪽.

연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²⁶⁾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펼쳐져온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책을 통하여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토론이 펼쳐질 수 있고 디지털시대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문화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는 미국 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The Center for the Book)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미국내 48개 주의 239개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어, 주(州)마다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십여 개 이상의 지역사회에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에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와 충남 서산시가 2003년 10월 현재 황선미의 작품인 『마당을 나온 암탉』을 선정하여 성공리에 수행하였던 ‘서산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순천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한 ‘한 책, 한 도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영불 이중 언어권인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운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례이다.²⁷⁾

이 운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토론문화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 운동을 통하여 독자는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뿐만 아니라, 그 책 자체나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 작가 등에 연관된 영화, 연극, 전시회와 같은 여러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독서의 경험이 바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이 운동의 주체세력이 도서관이라는 것이며, 이 운동이 단발적, 일회적 행사로 그치지 않고 도서관에서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운동에서 도서관인은 주도세력이 되어 지역

26) 윤정옥, 앞의 글, 46쪽.

27) 위의 글, 46쪽.

사회 구성원들을 책의 오아시스로 안내한다. 사서들은 자신들의 서지 기술과 네트워크 조직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의 바다에서 항해할 때 나침반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이 이 운동의 추진주체가 됨으로써 얻는 장점은 운동의 지속성이다. 2004년 5월 239개 ‘한 책, 한 도시’ 프로젝트에서 절반에 이르는 118개가 이미 2004년 행사를 진행하였다.²⁸⁾ 이 운동의 전체과정에 사서가 개입한다는 사실은 지식기반시대에서 사서가 도서관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도서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⁹⁾

4. 부산북스타트운동의 성과와 한계

1) 부산북스타트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과

BBS는 2003년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주최로 시작된 범시민독서운동이다. BBS에서 2003년과 2004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사랑의 책 나누기>, <책 읽는 즐거움 나누기>, <범시민 도서교환전>, <One Book One Busan> 운동 등이 있다.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선물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의 기업, 사회복지단체, 대형 서점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³⁰⁾ 그런데 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학생들이 평소에 자유롭게 부담없이 독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일이

28) 위의 글, 58쪽.

29) 이권우,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의미: ‘읽고 토론하기’의 힘에 대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도서관협회·서산시립도서관, 2003. 9. 26, 13쪽.

30) 이수진, 앞의 글, 37쪽.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의 독서인프라라는 장서가 충실하게 갖추어진 학교도서관과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책 읽는 즐거움 나누기> 운동은 매월 20종의 신간서적을 안내하는 핸드북 30만부를 제작하여 지하철 문고,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생활보호대상가구, 대학병원 병동, 주민문고, 장애인협회 등에 보급하는 운동이다.³¹⁾ <범시민 도서교환전>은 가정에서 읽고 나누고 싶은 책을 새 책이나 우리 농산물 쿠폰으로 교환해주는 행사이다.³²⁾

<One Book One Busan>은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하나인 <One Book One Chicago> 운동을 모델로 하여 200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한 1권의 범시민 교양도서를 선정·배부하여 독후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토론문화 형성을 도모하는 독서 운동이다. 전국 교수단 1백여 명으로 구성된 독서지도모임인 한국독서학술회를 비롯하여 부산시교육청 독서교육지원단과 부산 시내 대형문고 베스트셀러 등에서 1차 권장도서를 선정한 후 부산 시민이 사이버투표를 통하여 최종 권장도서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책을 돌려읽고 시민독서축제한마당을 펼친다.³³⁾

BBS의 성과라고 한다면,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진 범시민 독서운동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조성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다. 2003년에 시작되어 최근까지 <One Book One Busan> 운동까지 펼쳐지고 있어 일정 부분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독서운동이 학교와 가정에서 책읽는 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하여 공동체문화를 도모하고, 사람들이 서로 책을 돌려보거나 추천하도록 하여 책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어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http://www.madang21.or.kr/2004_10/0408/T-03/p_04.htm#top1> (Cited 2005. 4. 15).

32) 이수진, 앞의 글, 38~39쪽.

33) <http://www.madang21.or.kr/2004_10/0408/T-03/p_04.htm#top1> (Cited 2005. 4. 15).

2) 부산북스타트운동의 한계와 그 극복 방안

BBS는 부산지역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BBS에는 핵심적인 독서인프라인 공공도서관이 빠져있다.

전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북스타트 운동과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운동의 주체 또는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선진국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이 운동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영국 북스타트의 경우 비영리단체인 북트러스트가 공공도서관, 보건국, 대학과 협력하여 시행한다. 북트러스트는 1926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되었는데 초창기 이름은 ‘전국책연맹(National Book League)’이었다. 현재 북트러스트는 전국단위의 독립적인 교육분야 자선단체(independent educational charity)로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게끔 만드는 것’을 단체의 기본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³⁴⁾ 북스타트 운동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운동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와 그 부모에게 제공되는 책꾸러미 가방에는 도서관카드를 비롯하여 도서관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있다.

실제의 한 예로 영국 셰필드 북스타트팀은 선물가방을 받은 유아들의 고유 도서관등록 바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이들 유아의 도서관등록과 이용현황을 매달 파악하고 있다. 이 현황에 의하면 현재 도서관에 등록된 ‘북스타트 유아’들의 절반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셰필드 지역 북스타트 담당 직원들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에 있는 3개의 공공도서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34) 김영석, 앞의 글, 294쪽.

세필드 공공도서관의 많은 사서들이 이 운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왜냐하면 이 운동과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서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³⁵⁾

선진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가 실제 방문한 미국 일리노이주 어바나도서관의 경우,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400개의 어린이프로그램을 운영한다.³⁶⁾ 이처럼 이들 공공도서관은 오랜 세월 동안 구축된 양질의 풍부한 장서를 바탕으로 이미 다채로운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독서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스타트 운동은 이들 공공도서관에서의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접목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BBS가 한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은 공동으로 면밀히 연구하여 BBS의 지속적인 성공과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BBS가 관주도로 진행되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부산시 교육청이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입안과 추진 능력, 그리고 한국 지역사회의 척박한 독서풍토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란 개인이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공서나 학교의 이벤트성 정책이나 행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교육청과 같은 관공서는 지역사회의 독서문화가 자연스럽게 꽃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기반을 조성하는

35) 위의 글, 297쪽.

36) 이용재, 「어바나도서관(The Urbana Free Library)의 현재와 미래: 프레드릭 실립(Frederick A. Schlipf) 관장과의 인터뷰」, 『도서관계』 통권 104호, 2002. 7·8, 29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물론 척박한 독서문화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BBS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외 독서운동의 전개양상과 그러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청은 운동주체가 아닌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북스타트의 운영주체로 비영리기구(NPO)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영국 북트러스트와 유사한 비영리기구 ‘북스타트지원센터’가 2001년에 4월에 설립되어 북스타트 이념을 정확히 전달하고 일본 북스타트를 충실히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북스타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아동문학가, 발달심리학자, 소아과 의사, 육아지원 활동가, 지역 활동가(사서, 보건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사로 참가하고 있다.³⁷⁾ 한편 이러한 활동에 드는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³⁸⁾

우리나라의 경우, 북스타트의 한국 도입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모임이 ‘책읽는 사회만들기국민운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 명칭은 ‘북스타트한국위원회’로 정해졌다. 그러므로 부산에서도 북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국내외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북스타트한국위원회와 협력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 갈 때,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과 보건소의 협력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의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기울이는 것도 요망된다. 특히 부산의 북트러스트는 BBS의 운영주체가 되어 기획, 연구, 예산분배, 평가, 홍보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7) 사토 이즈미, 앞의 글, 19쪽.

38) 전기옥, 「책으로 시작하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북스타트 사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홈페이지<<http://www.bookreader.or.kr/>> (Cited 2005. 4. 15).

나아가 북스타트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위해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북스타트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기업체, 사회사업단체, 개인 등의 기부를 받는 것도 요망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나는 이상의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자의 단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은 서로 유리되어 전개되어 왔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도 각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동이 전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도서관운동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민간에서 이루어져 온 도서관운동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까지의 주요한 국내 도서관운동으로 전국사서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 운동,³⁹⁾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⁴⁰⁾을 비롯한 대학도서관 운동,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⁴¹⁾를 중심으로 한 학교도서관 운동⁴²⁾ 등이 있으며, 박

39)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시오.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2002.

40)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집과 책을 참조하시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외편,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자료집』,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9;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 1995; 이용재, 『주제화를 통해본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 한울, 2002.

41)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내실화와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펼치는 네트워크형 연대 단체이다. <<http://www.hakdo.net/>>, (Cited 2005. 4. 15).

42)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시오. 김

봉석⁴³⁾과 엄대섭⁴⁴⁾을 비롯하여 도서관운동을 위하여 일생동안 헌신한 여러 개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그리고 지식기반 시대를 준비하는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의 민간에서 이루어져온 도서관운동과 국내외 독서운동의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의 국내 민간에서의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을 살펴보면 뜻 있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여러 갈래의 운동이 펼쳐져 왔고 때로 소중한 결실을 맺어 지역사회에서 일정 부분 정착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관련 운동가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일상화된 운동으로 정착되거나 사람들의 폭넓은 인식과 연대를 얻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에 근대적 의미의 ‘민중의 대학’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이 사람들의 일상공간에서 기능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부산지역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도보권 내에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현재 부산지역에는 부산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11개 도서관과 1개 분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시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10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구 단위로 설립되어 있으며, 동 단위의 도서관은 아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이들 도서관 중 상당수

중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2000; 김종성, 『학교도서관 길찾기』, 나라말, 2004.

43) 박봉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십시오. 오동근 편,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태일사, 2000.

44) 엄대섭과 마을문고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십시오. 새마을문고중앙회 편, 『새마을문고운동 40년사』, 새마을문고중앙회, 2001;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2002.

는 산꼭대기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시내의 교통요지에 위치하며 대개 주민들이 10~3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잘 찾아갈 수 없는 곳에 큰 도서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금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여러 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소규모 마을도서관이 특정 동네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도서관으로 기능할 경우, 여타 지역의 부러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나아가 다른 주민들의 도서관건립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도서관으로 독립된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하는 동사무소의 건물을 증축하여 그 건물의 한 층에서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독서문화의 일상화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를 설립하고, 이러한 조직의 예산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부산시 교육청이 주도하는 BBS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북스타트 조직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직이 부산지역 북스타트운동의 기획, 운영, 홍보, 평가, 연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예산지원과 제도적·행정적 후원을 담당하는 것이 요망된다.

셋째,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책과 도서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도서관 이용과 독서에 대해서만 강조하거나 홍보하는 형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 책, 한 도시’ 운동에서도 보듯이, 독서체험이 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익숙해지고 영상문화를 즐기는 현상을 고려하여,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 영화, 연극, 전시회 등을 통하여 오감을 활용하는 문화운동으로서 신세대에게 다

가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도서관과 사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이러한 지식기반시대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책과 도서관을 각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장서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시급히 수립하여, 여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자료서비스 공간으로 기능하고 이를 대규모 중앙도서관이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 사서들이 소외된 지역이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책을 전달하거나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 정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상에서 국내외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과 관련하여 BBS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차후 관계당국과 학계가 협력하여 더욱 구체적인 과제 확인과 그 수행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디지털시대의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은 책과 도서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기본임을 확인하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운동방향이 정보강국을 넘어 지식강국으로 가는 길이며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正道(正道)이자 지름길일 것이다.

주요어 : 도서관문화, 도서관운동, 독서운동, 북스타트, 한 책 한 도시 운동, 부산북스타트.

참고문헌

- 김석준,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영기,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한울, 1999.
-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민음사, 1997.
- 김종성, 『학교도서관 길찾기』, 나라말, 2004.
- 새마을문고중앙회 편, 『새마을문고운동 40년사』, 새마을문고중앙회, 2001.
- 오동근 편,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태일사, 2000.
-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2002.
- 이용재, 『주제화를 통해본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 한울, 2002.
- Karen M. Venturella, *Poor People and Library Services*, 도서관운동연구회 옮김,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한울, 2002.
- Manuel Castells, *The Informational City*, 최병두 옮김, 『정보도시』, 한울, 2002.
-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ALA, 1995.
- 고영삼, 「21세기 지식정보문화도시를 위한 혁신전략」, 『부산발전포럼』, 2000 제1·2호, 6~9쪽.
- 곽금주, 「한국의 북스타트 시범운동 효과에 관한 연구(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 서울대 심리학과, 2003.
- 김경자,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2.
- 김선평,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책 과제」,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2002, 251~271쪽.
- 김영석,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 세필드 북스타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2004. 6, 291~313쪽.

- 김용규, 「부산공간의 변화와 그 문화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제24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10, 453~481쪽.
- 박인웅·이용재,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도서관』 제52권 제3호, 국립중앙도서관, 1997. 가을, 69~87쪽.
- 북스타트한국위원회 편, 「세계 북스타트 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3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 북스타트한국위원회, 2003.
- 신남희, 「사립도서관의 현황과 전망」,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2002, 519~535쪽.
-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4. 9, 45~66쪽.
- 이수진,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부산 북스타트 운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8.
- 이용재, 「도서관운동과 학술운동에 대한 생각나누기」, 강남대 문헌정보학과 창립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 문헌정보학과, 1999, 9~23쪽.
- _____, 「우리나라 독서교육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인천교육』 제22호, 2000. 4, 17~25쪽.
- _____, 「어바나도서관(The Urbana Free Library)의 현재와 미래: 프레드릭 쉘립(Frederick A. Schlipf) 관장과의 인터뷰」, 『도서관계』 제104호, 국립중앙도서관, 2002. 7·8, 28~33쪽.
- _____, 「교육열과 도서관의 엇박자」, 『국제신문』 시론(2003. 8. 17); 「바람직한 정보화사회」, 『국제신문』 시론(2003. 9. 22); 「정보격차와 도서관」, 『국제신문』 시론(2003. 10. 28); 「종이매체와 전자매체」, 『국제신문』 시론(2003. 11. 30).
- _____,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발전 전망」, 2003년도 경남 공공도서관 CEO 연수교재, 공공도서관경남지역협의회, 2003, 7~15쪽.
- 이용훈, 「참여정부의 도서관정책: 자율과 분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41권 제1호, 국회도서관, 2004. 1, 31~41쪽.

하야시 마사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일본의 공공도서관」, 『북매거진』,
1996. 2. 10, 36~41쪽.

한국도서관협회·서산시립도서관 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
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3. 9. 26.

Abstract

The Trend and Development Plan of Busan Book Start(BB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Campaign in and out of Korea

Lee, Yong-Jae

This study explored the ways to activate library culture in Busa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browsed the 'library movement' and the 'reading campaign' in and out of Korea. Concretely, this study examined the small libraries movement organized by local habitants in Korea for the part of library movement, and also examined the reading campaign such as 'Bookstart' and 'One Book One City' in and out of Korea for the part of reading campaign. And this study analyse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Busan Book Start(BBS)' officially organiz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With abo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ies or ways to activate library culture in Busan; First, every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public libraries and small libraries within people's walking area in local communities. Second,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for sustained reading campaign in local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should sponsor the organization. Third, the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campaign need to make use of some strategies those are appropriate for digital age. Finally,

libraries and librarians need to play more active role and lead the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campaign in Korea.

Key words : library culture, library movement, reading campaign, Bookstart, One Book One City, BBS(Busan Book Start).

논문투고일 : 3월 15일

심사완료일 : 4월 9일

게재결정일 : 4월 18일